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유 고 은 방 희 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이 매개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및 근교에 소재한 5개 대학의 남녀 대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에 대한 성차 분석 결과 거부 민감성에서만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어 여성이 남성보다 거부 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 모형 검증 결과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의 하위차원인 돌봄과 과보호 중 과보호가 자기개념 명확성에 직접 경로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의 하위 차원인 돌봄과 과보호 모두는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자기 개념 명확성을 설명하는 간접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모형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다집단 분석 결과, 본 연구 모형이 남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양육행동, 자기개념 명확성,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환경에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이고 적응적인 모습이다. 수많은 가치관과 신념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카멜레온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며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숙고한다는 것은 자칫

* 교신저자: 방희정, E-mail: hjbang@ewha.ac.kr

* 본 논문은 유고은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시대에 뒤쳐진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자기 개념(Self-concept)’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점과 감정 및 행동하는 방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현재 행동뿐 아니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기 개념에 대한 내용적이고 평가적 측면인 자기 신념 및 자기 존중감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은 낮은 자기 존중감이 우울, 불안, 공격 등 정서적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의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이민규, 2007).

한편, 자기 개념의 구조적 측면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와 같은 자기(Self)에 대한 지식적 요소 및 평가적 요소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자기 개념의 내용적 측면이다. 반면, 자기 개념의 구조적 측면은 자기 지식 및 정보들을 범주화하여 저장하고 있는 자기 개념의 인지적 요소들을 말하는데, 자기 개념의 구조적 측면의 하나가 바로 자기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이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 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며, 내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적인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자기 개념의 하위 요소인 자기 존중감, 자기 신념, 자기 개념 복잡성 등과 관련이 있으나 이들과는 구별된 개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Campbell, 1990; Campbell, Trapnell, Heine, Katz, Lavalle & Lehman, 1996).

자기개념 명확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이 주가 되고 있는데, 자기개념 명확성이 특별히 사회적 평가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 경우 외부의 부정적 단서 및 정보에 대해 부정적 정서가 쉽게 유발되고 자아(Ego)의 위협을 크게 느끼며(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Nezlek & Plesko, 2001), 부정적 평가에 대해 더 나쁘게 인식하고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한 가능성 또한 더 높게 지각하는 인지도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강일선, 2005). 따라서 자기 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사회적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고(Stopa, Brown, Luke & Hirsch, 2010),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쉽게 위협을 느껴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zlek & Plesko, 2001). 이외에도 자기 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고, 균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여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점이 밝혀졌다(Bigler, Neimeyer & Brown, 2001; Campbell et al, 1996)

이처럼 자기 개념 명확성은 개인의 삶의 적응 및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는 바, 자기 개념 명확성의 발달 및 형성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변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자기 개념 명확성 형성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자기 개념 명확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자기 개념 명확성 형성에 설명력을 가진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자의식, 인지적 유연성, 자기에, 자기 존중감, 자기개념 복잡성 등 주로 개인 내적 요인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자기 개념 명확성을 제외한 자기 개념의 다른 차원들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이 다수이다(송보라, 이기학, 2009a; 송보라, 이기학, 2009b;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Bigler, Neimeyer, & Brown, 2001; Butzer & Kuiper, 2006; Csank & Conway, 2004; Nezlek & Plesko, 2001). 그러나 개인이 명확하고 일관된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되는데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들과 더불어 환경적 변인을 함께 파악할 때 자기 개념 명확성의 형

성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형성을 설명하는 개인 내적 요인과 함께 환경적 변인들을 함께 다루고자 하였으며, 특히 개인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 중 하나인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의 양육행동은 자녀를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뜻하고 반응적 양육행동은 안정적 애착, 친사회성, 긍정적 또래 관계, 높은 자존감 및 도덕성 등 긍정적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haffer & Kipp, 2007).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많은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를 개관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은 기본적으로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의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돌봄(Care)은 따뜻함, 수용, 지각된 애정을 의미하고 있어, 돌봄 차원에서는 온화함과 애정, 이에 대조되는 무관심, 무시와 관련된 부모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과보호(Overprotection)는 통제하거나 제약하고,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과보호 차원은 부모의 통제, 간섭, 과잉보호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격려하는 부모의 행동을 나타낸다. 부모의 관심과 지원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가 지각할 때 부모의 관심이 지나쳐 통제적이고 과보호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이는 자녀의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와도 연관되며 특히 불안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dson & Rapee, 2001; Lima, Mello, & Mari, 2010; Rapee, 1997). 또한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낮추는 등 자녀의 독립적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Holmbeck, Johnson, Wills, McKernon, Rose, Erklín, & Kemper, 2002).

이러한 양육행동은 전반적 자기개념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연구된 바 있다(Mcclun & Merrell, 1998; Parish & McCluskey, 1992). 개인의 자기 개념 및 자신에 대한 가치감은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관계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Comb, Richards와 Richards(1976)는 자기 개념 발달에 있어서 가족과의 초기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수용과 거부는 자신의 적절성을 지각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모의 돌봄이 부정적, 긍정적 자기 진술(Self-statement)과 자기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를 예측함을 나타내었으며(Ingram, Overbey & Fortier, 2000), 온정과 제한이 적절한 균형적인 양육이 자녀가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 감각을 지니게 하고, 자신의 노력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지각하는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Mcclunm & Merrell, 1998). 이와 유사하게 부모의 양육에 대해 과보호 및 통제가 높다고 지각한 자녀들은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시은, 2009). 또한 자녀가 부모의 양육에 대해 애정과 지지가 높고 덜 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기 존중감이 높다는 다수의 연구도 존재하고 있어(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Hall, Peden, Rayens, & Beebe, 2004; Rohner, 2004),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전반적 자기 개념 뿐 아니라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 자기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 등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에 대한 감각은 유의미한 타인의 승인, 칭찬을 반영하는 사회적 산물인데(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지적임과 동시에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자녀가 고유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전달하고, 부모가 자녀를 신뢰

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여김을 나타내는 것이다(Geccas & Schwalbe, 1986). 따라서 적절한 온정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로 하여금 자기(Self)에 대해 긍정적 지각과 느낌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이 전반적 자기개념 및 자기에 대한 평가적 측면과 관련성이 높음이 밝혀져 왔으나,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인 자기개념 명확성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연구한 한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남자 대학생의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남, 여 대학생 모두의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승진, 2008).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기개념 명확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함을 확인하였을 뿐 부정적 양육행동이 어떠한 기제에 의해 자기개념 명확성을 저하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확인하여 양육행동이 자기개념 명확성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을 선정하였다.

먼저, 애착은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초기 아동기에 형성된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이다(Bowlby, 1958). 애착이론은 아동이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 대상 및 자신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발달시킨다고 가정한다(Bowlby, 1988). 이러한 내적 작동모델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는 유연한

특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일차적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작동 모델의 기본적 구조와 강도를 제공하고, 이렇게 형성된 모델은 변화에 저항적이라는 것이 애착 이론의 기본적 주장이다(Rothbard & Shaver, 1994). 이처럼 애착이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가 지각한 모의 양육행동과 애착 사이에는 높은 관련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애착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들이 밝혀진 바 있다(조미정, 성현란, 2009; Leigh, Anna Beth, & Dorothy, 2003).

애착이 생의 초기 반복적으로 경험된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이는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이론을 종합해 볼 때, 애착 유형이 부모 이외의 친밀한 타인이나 일반적인 타인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생의 초기 형성된 애착이 일종의 특성이나 성향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동직, 한성열, 1998). 선행연구들에 의하더라도 애착이 불안정할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포함하는 내적 작동 모델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밝혀졌다. 반면 애착이 안정적일 경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 균형 있고, 복합적이며, 일관성 있는 자기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이 전반적 자기개념 뿐 아니라 자기개념 명확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ikulincer, 1995; Wu, 2009).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애착 안정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거부 민감성이 다시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거부 민감성이란 대인 관계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를 항상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이다(Feldman &

Downey, 1994).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 불안은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라도 심각한 거절에 노출되어 수용의 욕구가 반복적으로 좌절됨을 통해 발달한다(Downey, Mougious, Ayduk, London, & Shoda, 2004). 거부 민감성은 부모가 아동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아동이 거부에 민감해진다는 Bowlby(1980)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거부 민감성의 발달에 초기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의 질과 유형은 거부 민감성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이복동, 2001; Erozkhan, 2009; Kennedy, 1999). 한편, 거부 민감성은 자기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주는데,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자존감(Self-esteem) 및 자기 가치감(Self-worth)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복동, 2001; Kennedy, 1999). 한편, 거부 민감성은 자기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주는데,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자존감(Self-esteem) 및 자기 가치감(Self-worth)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Ayduk et al., 2000; Ayduk, Gyurak & Luerksen, 2009).

이러한 이론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이 자기개념 명확성을 예측하는 관계를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

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 개념 명확성에서 성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 개념 명확성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연구문제 4.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구조적 모형과 경로에서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근교에 위치한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청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Harter Mons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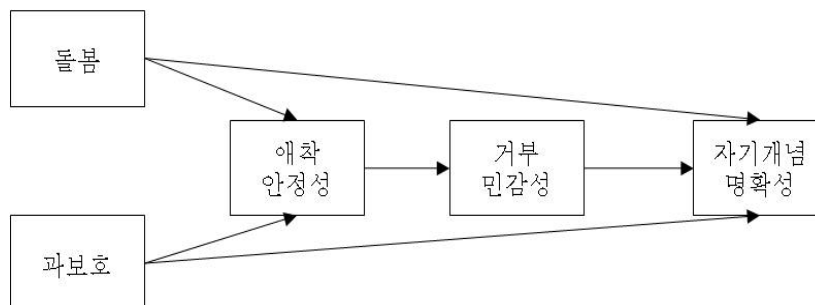


그림 1. 가설 모형

(1992)의 연구에서 청소년기 후반에 접어드는 연령인 17세 청소년에 이르러서야 자기에 대한 통합되고 일관된 견해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자기 개념이 일관되고 안정적인가를 의미하는 개념인 자기 개념 명확성을 측정하기에 초기 청년기 이후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총 49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475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일부 설문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66부를 제외하고 총 409개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남자 18-28세, 여자 17-28세로, 평균 연령(표준편차)은 남자 22.57(2.66)세, 여자 21.11(2.06)세였다. 대상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300-500만원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의 교육 수준은 대체로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졸업'에 분포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전체 인구집단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나 부모 학력이나 가족 형태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전체 인구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도구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자녀가 지각한 모의 양육행동은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이 개발하고 이후 Gamsa(1987)가 문항을 개정한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송지영(1992)이 번안 및 타당화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질문지는 과거 16세 이전까지 부모와의 관계를 회상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의 2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낸 태도 및 행동에 대해 묻는 질문이 각각 25문항씩(돌봄 12문항, 과보호 13문항) 총 50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2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돌봄에 해당하는 문항에는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주었다.”,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했다.” 등이 있으며, 과보호에 해당하는 문항에는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했다.”, “나를 어린애 취급하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안 그랬다’에서 4점 ‘아주 그랬다’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된다. 돌봄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수준이 높은 것이며, 과보호 차원은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이 통제적이고 침입적이라 지각함을 의미한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송지영(1992)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값이 어머니 돌봄이 .87, 과보호가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돌봄 .85, 과보호 .85였다.

애착 안정성

대학생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 부 애착을 제외하고 모 애착을 측정하는 2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예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주신다.” 등과 같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어머니 애착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값은 .87이었으며(Armsden & Greenberg, 1987),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거부 민감성

본 연구에서 거부 민감성은 Downey와 Feldman (1996)이 제작하고, 이복동(2001)이 번안한 거부민감성 척도(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Scale: RSQ)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에서는 성인 초기 일상생활에서 부모, 친구, 교수, 연인 등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해야 하는 18가지 상황을 제시한다(예: “친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한다,” “남자(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 먼저 전화해서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응답자가 각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부정적일 것에 대해 염려되거나 불안한지에 대한 불안정도(예: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 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남자(여자)친구가 만남을 거절할 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와 함께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한 기대정도(예: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예상된다,” “남자(여자)친구가 만나자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를 평정한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의 6점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거부 민감성 총점은 각 상황에 관하여 거부에 대한 불안점수와 기대점수의 곱을 합하여 18로 나눈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 민감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3이었으며(Downey & Feldman, 1996),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 개념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Campbell 등(1996)이 개발한 자기 개념 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를 사용하였다. 이는 처음에 2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였으나 요인 분석 후 12문항으로 단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단축된 최종 12문항을 김대익(1998)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예로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불일치 할 때가 있다.”, “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자주 바뀌는 것 같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개념이 명확하고, 일관적이며 안정적인 것을 나타낸다. Campbell 등의 연구(1996)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18.0과 AMOS 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 기술적인 통계 부분을 살펴보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가설에 따른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하였다.

둘째로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간의 성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로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평가를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연구 모형과 경로계수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관찰 변인들의 정규분포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변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 간 유의미한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에서 하위 차원인 돌봄과 과보호 사이에 부적 관계($r = -.45, p < .01$)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의 양육 행동의 하위 차원인 돌봄은 애착 안정성($r = .58, p < .01$) 및 자기 개념 명확성($r = .21, p < .01$)과는 정적 관계, 거부 민감성($r = -.23, p < .01$)과는 부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나머지 하위 차원인 과보호는 애착 안정성($r = .42, p < .01$) 및 자기개념 명확성($r = -.24, p < .01$)과 부적 관계를 나타낸 반면 거부 민감성과($r = .18, p < .01$)는 정적 관계가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거부 민감성과 자기 개념 명확성($r = -.20, p < .01$)은 부적인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상관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녀를 나누어 상관 분석을 실시한 뒤(표 1), 이들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isher's Z검증을 행하였다. 검증 결과 모든 변인들 간의 관련성에 있어 남녀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남자와 여자 집단의 변인 간 상관관계는 고려할 만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본 연구에 측정된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비일관적으로 보고된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성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별 남녀 간의 차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성차를 분석한 결과 거부 민감성에서만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t = -3.06, p < .01$), 여자가 남자에 비해 거부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변인들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상관

	1	2	3	4	5
1. 돌봄		-.56**	.57**	-.21**	.28**
2. 과보호	-.34**		-.51**	.16*	-.32**
3. 애착	.60**	-.35**		-.24**	.21**
4. 거부 민감성	-.22**	.19**	-.30**		-.26**
5. 자기개념 명확성	.14*	-.14*	.21**	-.25**	

* $p < .05$, ** $p < .01$

대각선 위: 남자/ 대각, 아래: 여자

표 2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 검증 결과 (N=409)

측정변인	남(N=201)	여(N=208)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양육 행동			
돌봄	38.66(4.79)	37.75(5.06)	1.87
과보호	25.73(7.01)	26.63(6.17)	-1.39
애착	94.85(9.37)	95.10(10.99)	-.248
거부민감성	11.32(1.84)	11.88(1.86)	-3.06**
자기개념 명확성	40.18(5.88)	39.51(5.05)	1.23

** $p < .0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 간의 구조적 관계

경로모형의 설정 및 적합도 분석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과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 간에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 사이를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가정에 따라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은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직접 경로를 가진다. 동시에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은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및 거부 민감성을 매개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을 설명한다(그림 2). 그러나 애착이 전반적 자기개념 뿐 아니라 자기개념 명확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Mikulincer, 1995; Wu, 2009), 애착 안정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바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림3의 대안 모형도 검증하였다.

바람직한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동시에 명확한 해석 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이다. 이러한 특성을 포

함하고 있어 가장 많이 쓰이는 적합도 지수는 NNFI (TLI)와 RMSEA이며 이와 함께 CFI도 많이 쓰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χ^2 적합도 지수 이외에 TLI, CFI, RMSEA로 모형을 평가하였다. 각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TLI와 CFI는 .90이상 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3, 409)=5.304, TLI=.979, CFI=.994, RMSEA=.043으로 모두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대안 모형으로서 애착 안정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으로 가는 경로를 추가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χ^2 (2, 409)=4.836, TLI=.960, CFI=.992, RMSEA=.059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조금 떨어졌으나, χ^2 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유도가 1 차이 날 때, χ^2 이 3.841이상 차이가 나면 두 모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χ^2 값의 차이가 0.468로 유의미한 두 모형에 있어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형 적합도가 조금 더 높고, 보다 간명한 모형인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결과적으로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의 하위 차원에서 과보호는 자기 개념 명확성을 직접적

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을 설명하는 연구 모형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모의 양육행동의 하위 차원에서 돌봄은 자기 개념 명확성에 대한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모형과 각 계수의 추정치는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모형의 모수추정치 분석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양육 행동의 하위 차원인 돌봄이 자기 개념 명확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의 모든 경로는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의 하위 차원인 돌봄이 애착 안정성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였으며($\beta=.495, p<.001$),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의 또 다른 하위 차원인 과보호는 애착 안정성($\beta= -.198, p<.001$)과 자기개념 명확성($\beta= -.139, p<.01$)에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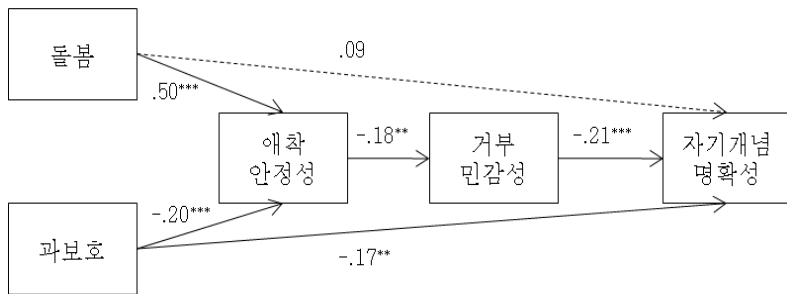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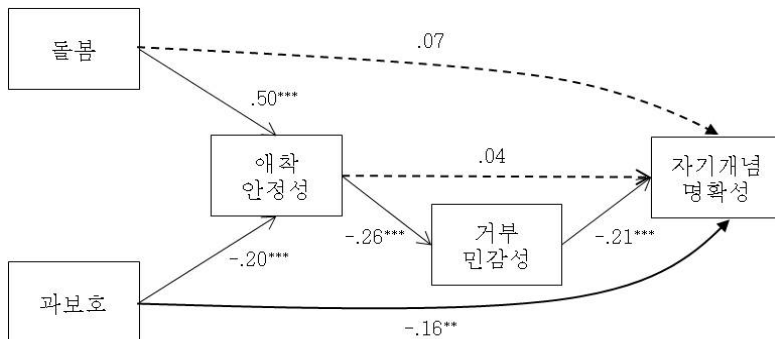


그림 3. 대안 모형

** $p<.01$, *** $p<.001$

표 3.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 모형의 모수추정치

모수(Parameter)	추정치(Estimate)		임계치 (C.R)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돌봄 → 애착	11.242	.495	11.242***
과보호 → 애착	-4.493	-.198	-4.493***
돌봄 → 자기개념 명확성	.101	.091	1.716
과보호 → 자기개념 명확성	-.139	-.168	-3.208**
애착 → 거부 민감성	-.033	-.181	-3.015**
거부 민감성 → 자기개념 명확성	-.613	-.210	-4.367***

** $p < .01$, *** $p < .001$

접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애착이 거부 민감성으로 이어지는 경로계수 또한 유의미하며($\beta = -.181$, $p < .01$), 거부 민감성이 자기 개념 명확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210$, $p < .001$).

종합해보면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인 과보호는 자기개념 명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에서 돌봄과 과보호는 모두 애착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애착 안정성은 거부 민감성을 설명하며, 거부 민감성은 다시 자기 개념 명확성을 예측함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로 이루어진 총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거부 민감성을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 사이에 간접효과를 발생시키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Sobel Test와는 달리 Bootstrapping 방법은 매개변인이 두 개 이상인 복잡한 간접효과

표 4.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돌봄	애착	.495	-	.495
	거부 민감성	-	-.129	-.129
	자기개념 명확성	.091	.027	.118
과보호	애착	-.198	-	-.198
	거부 민감성	-	.051	.051
	자기개념 명확성	-.169	-.011	-.180
애착	거부민감성	-.260	-	-.260
	자기개념 명확성	-	.055	.055
거부민감성	자기개념명확성	-.210	-	-.210

나타낸 수치는 표준화 계수

표 5.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 검증 결과

독립 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된 간접효과 추정치	표준화된 간접효과 추정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돌봄	거부 민감성	-.049	-.129	.026	-.069	-.032
	자기개념 명확성	.030	.027	.009	.016	.060
과보호	거부 민감성	.015	.051	.014	.007	.023
	자기개념 명확성	-.009	-.011	.004	-.017	-.004
애착	자기개념 명확성	.029	.055	.016	.014	.055

를 검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표준 오차를 추정할 필요 없이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한 후 신뢰구간을 형성하여 쉽게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간접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 자세히 살펴보면, 돌봄이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간접효과($\beta = -.129, p < .05$)가 유의미하여 애착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또한 돌봄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간접효과($\beta = .027, p < .05$) 또한 유의미하여 돌봄과 자기개념 명확성 사이를 애착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보호는 거부민감성에 유의미하게 간접효과($\beta = .051, p < .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이 과보호와 거부민감성 사이를 매개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과보호가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간접효과($\beta = -.011, p < .05$) 또한 유의미하여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애착과 거부민감성이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애착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유의미한 간접효과($\beta = .055, p < .05$)가 나타나 애착과 자기개념 명확성 사이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 비교

성별에 따라 연구 모형 및 특정 경로에서의 차이

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동일화 제약(equality constraint)을 가했다. 두 집단 경로계수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동일화 제약을 가할 경우 모형의 적합도는 떨어지게 된다. 만약 두 집단의 경로계수가 다르다면 동일화 제약으로 인해 떨어지는 적합도 그 이상으로 적합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완전제약 모형)과 기저모형(남·여 집단 모형의 χ^2 의 합과 자유도의 합으로 이루어진 모형)의 χ^2 차이를 검증해야 한다. χ^2 값이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면, 두 모형간의 경로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남·여 집단의 경로 계수를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기저 모형과 완전 제약 모형의 적합도 및 그 차이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유도 차이는 6이고 χ^2 차이 값은 8.092로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한 차이 값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즉, 기저 모형에 비해 완전제약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크게 나빠지지 않았으며, 남·여 집단의 경로계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구조적 관계를

표 6. 남·여 집단의 기저모형 및 완전제약 모델의 적합도 지수

	χ^2	df	$\Delta\chi^2$	Δ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6.394	6	-	-	.996	.999	.013
완전제약 모형	14.486	12	8.092	6	.989	.993	.023

밝히는 데 있었다. 특히 모의 양육행동이 자기개념 명확성을 예측하는 관계를 매개 변인인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을 통하여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에 기초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의 양육행동이 자기개념 명확성을 예측하고, 동시에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애착과 거부 민감성이 매개한다는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한편, 애착이 전반적 자기개념 뿐 아니라 자기개념 명확성과도 관련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던 선행연구를 고려하여(Mikulincer, 1995; Wu, 2009), 애착 안정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을 예측하는 경로를 포함하는 대안모형 또한 검증하였다. 그러나 대안모형에 추가된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합도도 다소 낮아져, 보다 간명하고 적합도도 높은 연구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는 애착이 자기 개념 명확성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들(Mikulincer, 1995; Wu, 2009)의 결과에 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애착 안정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거부 민감성을 설정하였던 차이점 때문에,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거부 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애착 안정성이 낮다고 해서 단순히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아진다고 보다 애착 안정성이 낮을 경우에 대인관계에서 과도한 민감함과 불안이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자기에 대한 초점이 줄어드는 바(Ayduk, Gyurak & Luerssen, 2009), 자기개념 명확성이 저해됨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인다. 거부 민감성의 매개효과

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하고자 한다.

채택된 연구모형을 볼 때,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의 하위차원인 과보호는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해 직접 경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의 하위차원인 돌봄과 과보호 모두는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을 매개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이 자기 개념 명확성에 가지는 직접 효과를 논의한 뒤, 이 둘의 관계에서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이 가지는 매개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의 두 하위 차원(돌봄, 과보호)이 자기 개념 명확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 가운데 돌봄의 직접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연구한 백승진(2008)에 의하면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서 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기 개념 명확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돌봄 차원은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에 대해 차갑고, 비수용적이라 지각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측정된 거부적 양육태도와 공통분모가 있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돌봄이 자기개념 명확성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개 변인을 설정하지 않았던 선행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돌봄과 자기개념 명확성 사이를 애착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매개효과로 인해 돌봄의 직접 효과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모의 양육을 수용적 혹은 거부적으로 지각하는지 여부가 자기 개념 명확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다른 변인들을 매개로 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해준다.

둘째,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에서 또 다른 하위 차원인 과보호는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해 애착과 거부 민감성을 매개한 간접효과가 유의미함과 동시에 직접효과 또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고 지각하는 자녀에게서 높은 자기개념과 자기 효능감이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이시은, 2009; McClunm & Merrell, 1998). 여기서 과보호는 돌봄 차원에서 말하는 양육자의 지지와 보호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자녀의 삶에 침입하고, 통제, 간섭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보호를 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서 삶의 문제를 빼앗아 자신이 처리해주므로 자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해 본 경험을 갖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발달 단계에 따른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저하시키게 된다(이시은, 2009). 또한 부모와 극단적으로 가깝거나 부모의 지나친 통제 및 보호는 스스로 의사 결정할 기회를 박탈하여 자녀의 정체감 유실에 기여하게 된다(장휘숙, 2010).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과보호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직접 관계는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가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고한 자기상을 확립하는데 있어 제약이 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종합해보면, 모의 양육행동이 수용적 또는 비수용적이었는지 여부보다는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통제하는 행동들이 개인이 명확한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셋째,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 개념 명확성 사이에서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의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먼저, 지각된 양육 행동이 애착 안정성을 매개하여 거부민감성을 설명하는 간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사람일수록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각된 양육 태도가 애착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다는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조미정, 성현란, 2009; Leigh, Anna Beth, & Dorothy, 2003). 또한 어린 시절 모와의 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거부 민감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이복동, 2001; Erozkhan, 2009; Kennedy, 1999)을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이 애착 안정성을 매개하여 거부 민감성을 예측한다는 경로의 확인을 통해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다룬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모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내적 작동 모델의 형태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쳐 타인의 거부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지각하는 거부 민감성을 발달시킴을 시사해 준다.

한편, 수용적이고 덜 통제적인 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예측된 애착 안정성은 다시 거부 민감성을 매개로 자기 개념 명확성을 예측한다는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거부 민감성이 높으며(이복동, 2001; Erozkhan, 2009; Kennedy, 1999),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불명확한 자기 개념을 가진다는(Ayduk, Gyurak, & Luerssen, 2009) 이전 연구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

종합해보면 모와 불안정적으로 형성된 애착은 내적 작동 모델의 형태로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를 기대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Rothbard & Shaver, 1994), 따라서 불안정 애착

은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편향된 지각을 하도록 하고, 거부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거부민감성을 예측하게 된다. 또한 거부민감성은 다시 자기개념 명확성을 설명하게 된다. 실제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감정 및 생각에 접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관련된다.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관계에서의 갈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억압하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여 자신을 거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기희생적인 관계 패턴을 발전시키기도 한다(Harper, Dickson & Welsh, 2006). 이처럼 거부 민감성은 타인의 반응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작 자기의 감정과 생각들에 접촉되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일관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Ayduk, Gyurak & Luerssen, 2009). 또한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부 상황에 더 과민하게 반응하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해 더 큰 혼란을 가질 수 있다(Ayduk, Gyurak & Luerssen, 2009)는 점에서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명확한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타인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에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은 피드백을 토대로 자기에 대한 개념을 더 명료화할 수 있는데(Wu, 2009) 반해, 거부에 민감한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이 높고 결과적으로 타인의 부정적 피드백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기 개념의 명확한 확립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집단 간에 모형 및 경로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 간 성차를 검증한 결과 거부 민감성을 제외

한 다른 변수들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어린 시절 모에게서 온정이 부족하고 통제적인 양육을 받아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경우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기대 불안이 높아지고 거부 불안을 높일수록 자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형성하기 힘들어진다는 해석이 남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래 자기 개념과 관련된 연구들이 자기 개념의 내용적이고 평가적 측면에서 관심을 이동하여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 개념 명확성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자기 개념 명확성을 예측하는 여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주로 자기 개념 명확성이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인지를 탐색해 왔다면, 본 연구는 발달적인 관점에서 자기 개념 명확성의 형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자기개념 명확성의 형성에 있어서 개인 내적인 변인 외에 모의 양육이라는 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셋째, 선행 연구들에서 단편적으로 논의되었던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 변인들을 통합적인 인과 관계의 틀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제적인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각된 양육 행동과 애착 안정성 모두 어머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의 양육행동 및 부에 대한 애착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자기 개념 명확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부와 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을 설명하는 환경적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영향력 보다 친구, 이성 등 기타 사회 환경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환경 변인을 추가한다면 자기 개념 명확성을 예측하는 요인들에 대해 더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을 안정성의 측면에서 양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애착 유형에 따라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에 차이가 나타나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이복동 2001; Erozkan, 2009; Wu, 2009), 후속 연구를 통해 애착 유형별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일선 (2005). 자기애와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아 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직, 한성열 (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 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91-109.
- 백승진 (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 명확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보라, 이기학 (2009a). 사적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 인지적 유연성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95-205.
- 송보라, 이기학 (2009b).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 관계에서의 인지적 유연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73-88.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신경정신학회지, 31(5), 979-992.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민규 (2007). 현대생활의 적응과 정신건강. 서울: 교육과학사.
- 이복동 (2001).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시은 (2009).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형태에 따른 자기 효능감과 또래 애착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81-500.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장휘숙 (2010). 전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조미정, 성현란 (2009). 양육태도, 애착 및 자기개념이 기혼여성의 회피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222-223.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 427-454.
- Ayduk, O., Gyurak, A. Luersse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Moderates the Impact of Rejection on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11), 1467-1478.
- Ayduk, O., Mendoza-Denton, R., Mischel, W., Downey, G., Peake, P. K., Rodriguez, M.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792.
- Bigler, B., Neimeyer, G., & Brown, E. (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3), 396-415.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Developmental Psychiatry comes of ag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10.
- Butzer, B. & Kuiper, N. A. (2006). Relationships between the frequency of social comparison and self-concept clarity,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xiet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1), 167-176.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549.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L. M., Lavalle, L. F., & Lehman, D. R. (1996).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ombs, A. W., Richards, A. C., & Richards, F. (1976). *Perceptual Psychology: A Humanistic Approach to the Study of Persons*. New York: Harper & Row.
- Csank, P. R. & Conway, M. (2004). Engaging in self-reflection changes self-concept clarity: On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men and low- and high-clarity individuals. *Sex roles*, 50(7), 469-480.
-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 (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05-715.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Mougios, V., Ayduk, O., London, B. E.,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 Erozka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 gender, and parenting styl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7(1), 1-14.
- Feldman, S.,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logy*, 6, 231-247.
- Gamsa, A. A. (1987). Note on the modification

-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0, 291-294.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Hall, L. A., Peden, A. R., Rayens, M. K., & Beebe, L. (2004). Parental bonding: A key factor for mental health of college women.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5(3), 277-291.
- Harper, M. S., Dickson, J. W., & Welsh, D. P. (2006). Self-Silenc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459-467.
- Harter, S., & Monsour, A. (1992). Developmental analysis of conflict caused by opposing attributes in the adolescent self-portrait.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51-260.
- Holombeck, G. N., Johnson, S. Z., Wills, K. E., McKernon, W., Rose, B., Erclin, S., & Kemper, T. (2002). Observed and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in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in preadolescents with a physical disability: The mediational role of behavioral autonom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96-110.
- Hudson, J. L. & Rapee, R. M. (2001).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anxiety disorders: an observational stud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9, 1411-1427.
- Ingram, R. E., Overbey, T., & Fortier, M. (2000). Individual differences in dysfunctional automatic thinking and parental bonding: specificity of maternal ca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401-412.
- Kennedy, J. H. (1999). Romantic attachment and ego identity, attributional style, and family of origin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33, 171-180.
- Leigh, K., Anna Beth, D. & Dorothy, M. (2003).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style and attachment to mother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53-165.
- Lima, A. R., Mello, M. F. & Mari, J. J. (2010). The role of early parental bonding in the development of psychiatric symptoms in adulthood. *Curr Opin Psychiatry*, 23, 383-387.
- McClun, L. A., Merrell, K. W. (1998).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and self concept among junior high age stud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5(4), 381-390.
- Mikulincer, M. (1995). Attachment style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6), 1203-1215.
- Nezlek, J. B., & Plesko, R. M. (2001). Day-to-Day Relationships Among Self-Concept Clarity, Self-Esteem, Daily Events, and Moo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2), 201-211.
- Parish, T. S., McCluskey, J. J.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young adults' self-concepts and evaluations of parents. *Family Therapy*, 21, 223-226.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Rapee, R. M. (1997). Potential role of child 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1), 47-67.
- Rohner, R. P. (2004). The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Syndrome": Universal correlates of perceived rejection. *American Psychologist*, 59(8), 830-840.
- Rothbard, J. C., & Shaver, P. R. (1994). Continuity of Attachment across the life span. In W. H. Berman, & M. B. Sperling (Eds.),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Schaffer, D. R. & Kipp, K. (2007). *Developmental psychology*. Belmont, CA: Tomeson Wadsworth.
- Stopa, L., Brown, M. A., Luke, M. A., & Hirsch, C. R. (2010). Constructing a self: The role of self-structure and self-certainty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1(1), 1-11.
- Wu, C.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 and self-concept clarity: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1), 42-46.
-

1차 원고 접수: 2011. 04. 14

수정 원고 접수: 2011. 05. 15

최종 게재 결정: 2011. 05. 16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Self-concept Clarity: Mediation Effect of Attachment Secur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Go-Eun Yu

Hee-Jeong B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ttachment security,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concept Clarity.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suppose that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Self-concept Clarity is mediated by attachment secur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For this research, the self-report data of 409 College student in Seoul and suburbs of Seoul were analyzed. After examining hypothetical model, subordinate levels of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verprotection, has a direct effect on Self-concept clarity. At the same tim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 levels of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care and overprotection, and Self-concept clarity was mediated by attachment security to the mother and rejection sensitivity. However, care was not significant as a direct path to predicting Self-Concept Clarity. Lastly, the study model was shown to be suitable both to male and female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Path Coefficient.

Keywords: Parenting Behaviors, Attachment Security, Rejection Sensitivity, Self-concept Clarity